중국산 **철스크랩 수입하는 국내 제강사들…고철업계 '촉각'**

Date: 2 June 2017
Source: Chosun Biz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427.html

전기로업체들이 최근 중국 철스크랩을 수입하기 시작하자 국내 고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중국산 철스크랩 수입의 포문을 연 제강사는 세아베스틸이다. 세아베스틸은 지난달 중국산 슈레디드 2만톤을 수입한데 이어 이달 1만톤을 추가로 계약했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중국 업체가 기존 수입선이었던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며 "중국산 철스크랩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충족한다면 앞으로도 수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도 곧 수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나 물량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우나 조만간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국제강 등 다른 제강사들은 품질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철스크랩 축적량은 약 70억톤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야금산업기획연구소(China Metallurgical Industry Planning and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25년 100억톤, 2030년 120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철스크랩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면 세계 철스크랩 시장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강사들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국내 고철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철강협회 산하 철스크랩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철스크랩 사용량은 축적량보다 현저히 낮다"며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등의 필요성은 업계 전반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제재활용국(BIR·Bureau of International Recycling)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 대비 철스크랩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11.1%로 70%를 웃도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보다 크게 낮다. 다만 지난해 사용량은 전년대비 10.4% 늘었다. 롤프 윌레크(Rolf Willeke) BIR 철강통계 보좌관은 "중국이 내수 시장에서 전보다 많은 양의 철스크랩을 소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내 철스크랩 유통업체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국을 늘리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스크랩 수출량은 55만4049톤으로 전년(41만8143톤)대비 33%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5만5532톤), 베트남(11만167톤) 순으로 많다. 특히 베트남 수출량은 344% 늘었다.

고품질 전략으로 세계 2위 철스크랩 수출국인 일본에 첫발을 들인 업체도 있다. GMR머티리얼즈는 지난 24일 일본 최대 전기로업체인 동경제철과 3000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철스크랩 수출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40%의 높은 수출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철스크랩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세율이 없어지거나 낮아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 중국 업체들이 수출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로 수출되는 중국산 철스크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정부 주도의 유도전기로(철스크랩을 주원료로 하는 소형 전기로) 폐쇄로 문을 닫게 생긴 일부 업체에서 흘러나오는 재고”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허베이성(河北省) 당산시(唐山市)에 이어 광동성(廣東省)에도 유도전기로 폐쇄 명령을 내린 상태다. 폐쇄 명단에 오른 광동성의 35개 제강 공장이 보유한 유도전기로는 총 138개로 이들의 생산능력은 약 1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